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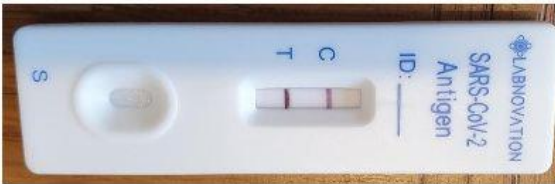
# “베트남으로 다시”

19번째 하노이 소식

## 베트남 재정착

1월 중순에 긴 안식년을 마치고 베트남 하노이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일주일 자가격리를 하였으며, 격리가 끝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세 들어 잘 살았던 아파트를 비워주고 같은 동 6층에서 20층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많이 둘러보지 못하고 결정을 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위치가 시내를 벗어나 교통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자연이 가까이 있고, 매일 걸을 수 있는 곳이라 만족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대열에 합류 하였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생활을 했는데도 3월에 양승봉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회복이 더디어 거의 3 주나 고생을 하였습니다. 6 명이 함께 테니스를 쳤는데, 그 중에 4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다들 가까이 하지 않고 운동을 했는데도 감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 하노이 누가들의 나들이

하노이에 5 가정의 누가들이 5월 연휴를 맞아 2박 3일의 환상적인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결혼 25주년을 맞은 한 선생님 부부도 축하하고, 교직 20년을 은퇴하는 최 선생님도 축하하였습니다. 함께 밥 먹고, 찬양하고, 말씀도 나누고, 각 가정의 살아온 길들을 길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베트남을 잘 섬기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노이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 농촌 지역에 호스피스 요양원 건립을 위한 땅을 600평 정도 샀



는데 나들이 가는 길에 다 같이 들러서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맨 위 사진)

## 감각 교육책(Tactile Book) 만들기



지난 5년 간 만든 감각교육책이 50권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감각교육책을 바탕으로 한 전국 구연동화 대회(1,250명 참석)에 참가하여 상위 5위에 입상을 하여 1억 동(약 500만원)을 상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책을 만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을 만드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자의 집



하노이에서 사역하는 고신사역자 4 가정이 연합하여 제자의 집(Disciple House)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노이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소수부족 출신 기독교 대학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며, 생활을 지원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 유일한 정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전도사 부부가 함께 살며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학이 가까운 곳에 좁다란 4층 집(방 3개)을 빌려서 사용하며, 입주 정원이 10명입니다. 고신 사역자들이 십사일반 회비를 내고, 한 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아직 필요한 재정의 반 정도 밖에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소수부족은 인구의 10% 미만인데, 경제 사회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교육의 기회도 제한되어 있으나 그리스도인 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 가족들 소식

신경희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듣고, 과제 제출하고, 시험 치는 일로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 목, 허리 디스크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사히 과정을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네 가정은 잘 지내고 있으며 손녀 하린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할비, 할미로 인사하는 것이 감사하고, 신기합니다.

둘째 경모는 진로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터널을 믿음으로 통과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

랍니다.

막내 인모는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 함께 손 모아 주세요

1. 하노이의 김스크리닉이 좋은 형태로 변화되어 안정적인 선교기지가 되게 하소서
2. 베트남 기독교사회가 든든히 세워져 베트남을 잘 섬기게 하소서
3. 영어 회화클럽과 한국어 사랑방을 통하여 많은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나누게 하소서
4. 뉴질랜드 내에 한인 기독교의료인 공동체가 만들어짐을 감사합니다(2022년 1월 12일)
5. 진모 가정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6. 둘째 경모가 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7. 인모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소서

2022년 6월 9일

양승봉, 신경희 드림